

# 장관 내정 유영민 · 조명균 · 김영록 · 정현백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이들만에 장관 인선, 17개 부 가운데 15개 완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66)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조명균(60)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록(62)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현백(64·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장관 인선은 지난 11일 국방·법무·교육·문화·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발표한 뒤 이틀만에 이뤄졌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인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조명균 전 비서관은 동성고와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확산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참여정부에

서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역임했다.

통일부 장관에 정치인과 외부인사가 아닌 통일부 내부 출신이 장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대북전략과 협상에 정통한 관료를 발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영민 전 원장은 동대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 CNS 부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미래 유영민 후보



통일 조명균 후보



농림 김영록 후보



여성 정현백 후보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 전 의원은 광주제일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완도군수 등을 거치면서 행정분야에 경험도 쌓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정현백 교수는 이화여고를 거쳐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서양

사를 전공했고 독일 보룸대에서 독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에서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로써 총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15명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고용노동부(조대업) ▲교육부(김상곤) ▲국방부(송영무) ▲국토교통부(김현미·여) ▲기획재정부(김동연)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미래창조과학부(유영민) ▲법무부(안경환) ▲외교부(강경화·여) ▲여성가족부(정현백·여) ▲통일부(조명균) ▲환경부(김은경·여) ▲해양수산부(김영춘) ▲행정자치부(김부겸·이상 가나디순) 등이다. /뉴시스

## 文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만이다.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 급속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억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청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공정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한다"면서 "흡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새정부의 조각이 지꾸 늦

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회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물론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으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병헌 정부수석은 야당 대표들과 정부위원장에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며 채택은 하지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

## 靑 "시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장에서 김 공정거래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다닌 낚은 가방을 보여 대화하고 있다.

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선 후 바로 야당을 방문하고 또 야당 원내대표를 초청하는 등 협치를 했다"며 "또 청문회와 관련해 여러차례 협조를 당부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정동영 의원실, 통일시대 어젠다 설정 토론회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정동영 의원실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시대를 여는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하고 이연재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자문위원, 전영선 건국대 연구교수, 이상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 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 꼭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신민후관(先民後官)의 정신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가는데 토론회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유성엽, '교육·문화 핵심 현안' 청와대에 전달

교육·문화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유성엽 국회의원회차교육관광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장 초청 오찬에서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한 사항은 ▲교육부를 '준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전환 ▲관광 업무를 통합 관할할 '대한민국 관광청' 신설 ▲문화재청 문화재 직권지정 등 문화재 보호 강화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 등으로 밝혀졌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교육위, 2016년도 교육청 결산심사

2016년도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전라북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양용모(전주8) 의원은 특히,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의 불용액 문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교육문화회관이 개발한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직속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농경위, 민간육종연구단지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13일,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정부가 종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수립한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개 입주기업 규모의 연구동과 시험포장 등 연구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공동시설로 종자산업진흥센터와 공동전시포, 전시온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종자개발에서 산업화까지 종자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 과정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화수 위원장은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글로벌 종자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육종기술 지원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